



마을의 설화

이 마을에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괴이한 설화가 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 자리한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르는 대가 또한 참혹하다고 전해진다.

평생의 부귀영화를 탐한 자는 금은보화를 얻었되,

며칠 후 피부가 검게 변하고 송곳니가 자라더니,

오장육부가 터져 나와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고,

분에 넘치는 여인을 탐한 자는 그 여인을 얻었으나,

훗날, 메뚜기 떼가 덮쳐 살점을 모조리 먹어 치워

백골만 남았다 하니, 참으로 기괴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우물이라 하여

그곳에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다.